



인공위성전에 전시된 위성 모형(왼쪽부터), 누리호 75t 엔진 등이 전시된 실물형 전시관, 나로호 발사 과정을 게임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나로호 발사 통제센터 게임 기구.

쏟아 IT 정보

네이버, 웹툰 IP 숏드라마 공개

네이버가 LG유플러스의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스튜디오 엑스플러스 유'와 네이버 웹툰 지적재산(IP) 기반 숏드라마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업에서는 막장 악녀, 자판 귀, 자매 전쟁, 스파맨 등 인기 IP 4편이 숏드라마로 재탄생한다. 네이버는 이번 협업으로 웹툰 IP의 영상화 역량과 숏폼 콘텐츠 제작 전문성을 결합, 변화하는 콘텐츠 소비 흐름에 최적화된 짧고 몰입도 높은 숏드라마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숏드라마는 오는 30일부터 네이버TV, 지치직에서 시청할 수 있다.

쿠광플레이, LAFC 생중계

쿠광플레이가 손흥민이 소속된 LAFC(로스앤젤레스 풋볼클럽)의 2025시즌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전 경기를 한국어로 생중계한다고 16일 밝혔다. 쿠광플레이의 첫 중계는 이날 오전 9시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산호세 어스퀘이크스와의 원정 경기다. 장지현 해설위원과 양동석 캐스터가 중계를 맡는다. 쿠광플레이는 MLS와 올해뿐 아니라 내년간 파트너십을 통해 정규 시즌부터 플레이오프까지 LAFC 경기를 실시간으로 함께한다고 전했다. 다만, 정확한 계약 기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우버 택시, 시니어 계정 출시

글로벌 택시 호출 플랫폼 우버 택시가 시니어 계정과 간단 모드를 국내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출시로 가족 계정은 청소년 자녀 계정에서 시니어 계정까지 확대됐다. 우버 시니어 계정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도 우버 앱으로 손쉽게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호출부터 탑승까지 과정을 단순화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했다. 우버 시니어 계정은 가족 구성원이 우버 앱에서 가족 계정을 만든 뒤 부모나 조부모를 초대하면 생성할 수 있다. 시니어 계정을 이용하면 어르신이나 가족이 택시를 호출하거나 결제할 수 있다.

SKT, 챗 GPT 플러스 시작

SK텔레콤이 오픈 AI의 국내 통신사 유일 기업 대고객(B2C) 서비스 협력사로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오픈 AI가 한국 사무소를 열어 본격적인 국내 진출을 밝힌 것을 계기로 오픈 AI의 유료 서비스 챗 GPT 플러스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챗 GPT 신규 가입자 및 3개월 이상 유료 사용 이력이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챗 GPT 플러스 1개월 구독 시 2개월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 SKT는 오픈 AI와 B2C, 기업 대 기업(B2B) 분야를 비롯해 SK 그룹 차원의 협력 확장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1월 누리호 4차 발사 '나로우주센터' 가보자

올해 11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대한민국 우주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고흥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일 찾은 고흥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입구에는 대한민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의 실물 크기 모형이 전시돼 있었다. 33.5m 높이의 모형은 귀를 뚫을 듯한 엔진 굉음과 엄청난 불꽃을 뿜으며 우주로 향했던 2013년 나로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정면에서 바라본 과학관 왼쪽에 위치한 실물형 전시관은 과학관에 입장하기 전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았다. 이곳에서는 누리호의 75t 엔진뿐 아니라 누리호 구조물인 1단 후방동체, 2단 추진체 탱크 실린더, 3단 산화제 탱크 구조물 등을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다. 탑재된 위성을 대기 마찰열과 압력으로 부터 보호하는 페어링, 한국형 발사체 성능 검증 위성 등도 전시돼 로켓의 내부 구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우주과학관은 총 2층 규모로 기본원리존과 로켓존, 인공위성존, 우주탐사존으로 구성돼 있다.

우주 향한 꿈의 시작 '우주과학관' 기본원리·로켓·인공위성·우주탐사존 대한민국 '우주과학' 역사 한눈에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은 달에 가면 10kg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목성에서 몸무게를 재면 지구의 2.36배가 늘어 140kg이 된다. 기본원리존에 입장하면 우주에서의 기본적 운동 원리를 알아보는 '우주 체중계'가 입구에서 반긴다. 인류가 우주로 향해 도전한 발자취를 연도별로 정리한 전시도 눈길을 끈다. 체험 시설도 다양하다. 우주에서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순간 로켓의 표면 온도는 공기 마찰에 의해 1000도가 넘는다. 이를 견디기 위해 로켓 외부에는 세라믹 단열재가 부착된다. 관람객은 단열재가 적용된 기구와 비단열재로 된 기구에 각각 손을 넣어 열기 차이를 체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 발사 통제

센터 게임 기구 앞에 앉으면 '1단 엔진 점화', '이륙', '페어링 분리', '위성 분리' 등의 글자가 화면에 뜬다. 나로호가 만들어지고 발사되기까지의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형태로 제작된 게임이다. 최소 1명, 최대 4명까지 통제센터 기계 앞에 앉아 각 단계별로 맡은 임무를 수행하고 최종 4단계에서 공동으로 나로호를 발사하는 방식이다. 인공위성의 구조, 지상관측, 위성통신, 위성영상 활용관 코너로 구성된 인공위성존에는 1992년 남미 쿠쿠기지에서 발사된 우리별 1호, 2006년 러시아 공군기지에서 발사된 아리랑 2호 등의 모형이 전시돼 있다. 또 우주탐사존에서는 우주에서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우주복, 먹거리, 샤워시설 등 국제우주정거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간을 만날 수 있다. 우주과학관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매주 월요일 휴관이다. 관람료는 학생(초·중·고)은 1500원, 대인은 3000원이다. /고흥 글·사진=김민지 기자 kdi@kwangju.co.kr



AI 반려 로봇은 든든한 동반자일까

노인 돌봄·아동 정서 지원 효과 입증에도 '가족' 대신할수 없어

사람의 목소리와 감정을 흉내 내는 로봇들이 이제 노인 돌봄, 아동 정서 지원, 그리고 1인 가구의 든든한 동반자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과연 기계가 가족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지나친 정서적 의존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반려 로봇이 인간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인간관계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다.

감정을 정교하게 흉내 내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관계'와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가족의 의미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AI 반려 로봇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 일본 소니의 반려견 로봇 '아이보(Aibo)'는 사용자의 얼굴과 목소리를 인식하며 감정을 나누는 기술을 선보였다. 국내에서도 LG전자 등 대기업과 여러 스타트업이 반려동물이나 인간을 닮은 로봇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특히 AI 반려 로봇은 고령화 사회의 노인 돌봄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반려 로봇을 도입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기도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33.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사회적 연결망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AI 반려 로봇은 '디지털 동반자'로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로봇이 인간관계, 더 나아가 '가족'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지배적이다. 가족은 책임, 돌봄, 그리고 상호 의무를 기반으로 하는데 로봇은 감정을 흉내 낼 뿐 실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로봇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현실 속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AI 반려 로봇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윤리성이다. 어린이나 노인이 AI 반려 로봇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현실의 사회적 관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기계에 대한 정서적 의존이 인간관계 단절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조언한다. 공공복지 시스템과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함께 발전할 때만 AI 반려 로봇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